

성할 수 있는 노력, 도시문화에 걸맞는 부산을 만드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시는 즐거운 체험의 대상으로서 매력과 흥미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풍요롭게 할 단서들을 스스로 찾고 가꾸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가, 도시계획가, 관·민간업자들이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담론의 장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은 단순한 건설의 시대를 벗어나 고도화된 도시개발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토지집약적, 기술집약적, 복합기능적, 민간주도적인 데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90년대 프로젝트들은 도시의 건축은 총체적으로 다루는 데에서 착안되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건축에서도 도시맥락적 성격이 강조되는 프로젝트의 출현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이 부산을 사로잡았던 열기였던 데 비해 건축이란 상대적으로 진지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지난 시대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시대적 변화와 함께 건축환경에 대한 사회의식이 고조되고 활발한 건축적 탐구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아리아부대의 이전 등 도시재구축을 위한 도전적인 프로젝트의 출현이라는 상황이 그것이다. 건축계내에서는 실험적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그 활약방향이 뚜렷하지 않고 젊은 건축가들의 방향이 존재한다. 여기에 IMF가 겹치므로서 자체적 자정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건축계에 자기점검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소위 '위기가 호기' 일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방향의 탐색과 실행, 활기있는 논쟁이 펼쳐지면서 건축적 탐구의 줄기가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새로운 경향의 작품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을 기대해 본다.

이러한 개별적 어휘의 다양화와 더불어 미래에는 생태적 개발(Eco Development)과 지속성(Sustainable)을 지닌 개발의 연관개념이 효과적인 자기발전적 도구로서 개발에 관한 새로운 발상으로 떠오를 것이며 지역성이 바탕이된 세계적 수준의 개발(Global Development)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합리적 방향은 지역성의 정립을 보다 필요로 할 것이다.

부산
Pusan

지역건축탐방 regional architecture

부산건축을 위한 네가지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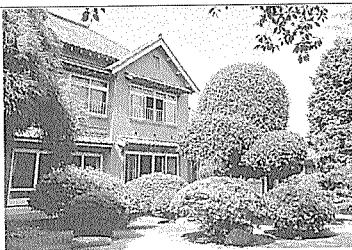
Four Propositions on Pusan

이종건 /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K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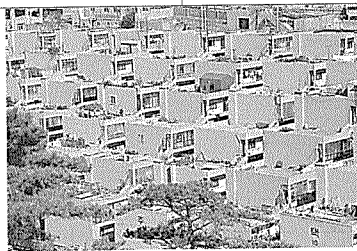
타을 바깥으로 돌리지 말자

이야기 주제로 '부산의 건축' 혹은 '부산의 건축가'를 잡으면 화살은 십중팔구 구조의 문제로 날아간다. 경제바탕이 부실하다든지, 고급 인력이 태부족이라든지, 대중의식이 말할 수 없이 낮다든지, 전문 관료가 허무할 정도로 비전문적이란든지, 전반적인 문화수준이 발바닥이라든지 하는 따위가 번번이 거론된다. 이런 현상들은 딱히 부산에만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땅 모든 곳에 만연해 있다고 지레 단정해도 별 무리가 없겠지만, 특히 부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싶다. 거기에 설계사무소들마저 꼬사래기 제살 뜯기 수주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그나마 신진 건축가들이 고개 들어 숨 한 번 쉴 천혜의 기획인 현상설계마저 더러운 돈 먹이기, 공무원들의 말도 되지 않는 경기규칙 만들기, 함량미달 교수들의 고정심사위원 때말기, 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전문가들(도면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의 심사위원 행세하기 등으로 아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지경이고 보면 문제가 마땅히 '구조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음에 게거품을 물지 않는 이가 오히려 이상할 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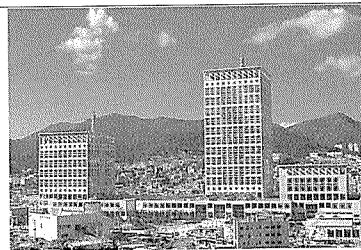
그러나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리 모든 타을 바깥으로 돌려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혁명으로 사태를 왕창 바꿀 수 없는 한 오히려 상황은 더 개악될 뿐이다. 척박한 상황에 저주를 떠부어도 다시 그 상황은 삶이 되어



임시수도 기념관



용호동 테라스 하우스



부산 시청사

차갑게 되돌아오고 우리는 그것을 밀칠 도리가 없다.

문제는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또한 온갖 사람들이 철렁굴마냥 얽혀 있다는 데 있다. 누구는 점진적 개혁을 주문한다. 보수와 손을 잡고 한 발자국만이라도 앞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있는 것을 인정한 위에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 개진한다. 그러나 글썽울시다. 그것은 진정 백년, 아니 천년을 뚫고 가야 할 막막한 길ियो. 말도 안되는 것들을 합법화시켜 자칫 한 번의 견제상실로 모든 것을 도루묵으로 만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개혁 또는 혁신의 시점에는 이미 자신이 거대한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흰 물에 검은 물 한 방울 타는 것과 검은 물에 흰 물 한 방울 타는 것이 전혀 같지 않음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현실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긍정해야 한다.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정작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사회개혁도 제도개선도 인식운동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 바로 서지 않고서야,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하지 않고서도 대체 다른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쭙잖은 일이며 우스꽝스럽고 그야말로 웃기는 일인가.

부산의 건축을 걱정하는가? 부산 땅에 건축문화를 세우고 싶은가? 부산광역시에 건축가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은가? 더 현실적으로, 건축가로 살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선 당신부터 변해야 한다. 문제를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한다.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부터 작은 혁명의 꽃을 피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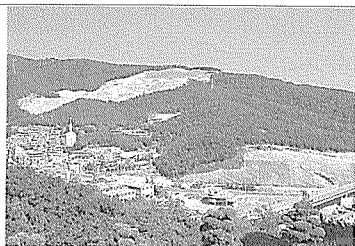
건축가의 삶을 살자

오늘날은 '스승이 없는 시대(Age without Mentor)' 라고 한다. 딱히 학생들이 선생의 그림자를 밟아 스승이 없다는 것만은 아니다. 스승의 삶을 살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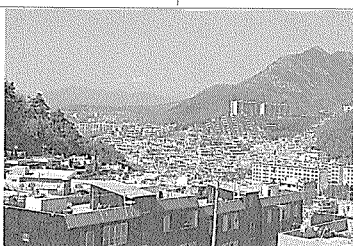
없음을 질타하는 말이다. 스승의 삶, 그것은 불의와 손잡지 아니하고, 돈과 명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급기야 밥그릇이나 목숨까지 담보로 바른 소리를 내어야 하고,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하며, 자신을 비위 세상을 담은 큰 삶을 뜻한다. 그러기에 외롭고 힘들며 항상 손해를 감수하는 일종의 고행의 길이다. 깨우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의 실천이 더 소중하다. 자본이 이데올로기요, 돈이 주인인 이 돈 세상에 누가 감히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살기를 나서겠는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시녀, 자본가의 접대부로 스스로 자처하는 지식인들 앞에 오! 스승이란 얼마나 불편한 낱말이며 시대착오적인 관념인가?

부산건축이 없다는 말은 부산 건축가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과연 부산땅에 건축가는 있는가? 무겁고 힘든 상황을 묵묵히 뚫고 건축에 정진하는 이가 진정 있는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건축이 없다는 사람들이여, 부산은 건축문화가 척박하다는 사람들이여, 청컨대 그대 스스로 먼저 건축가의 삶을 살기를 간청한다. 맑은 정신, 불타는 창조 의 혼, 지침 없는 정진, 가차없는 언설로 몸 붙인 땅에 싹을 틔우는 작가가기를 부탁한다. 돈 벌고, 명예 얻고, 모든 이로부터 감언을 듣고 싶은 욕망을 누르고 오직 철저하고 엄정한 정신으로 주어진 삶을 건축가로 살기를 희망한다. 세속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비겁을 준열히 꾸짖을 스승이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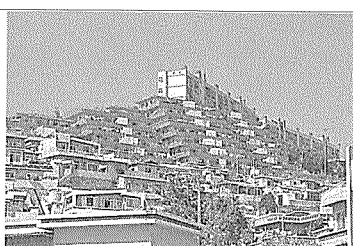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 '부산의 건축, 부산의 건축가' 심포지엄을 3단체 합동으로 치른 후 지금까지 같은 말이 반복해서 들린다. 모처럼 화해 무드의 3단체 결속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유치한 사고와 주장이 아직도 유포된다. 물론 학회와 사회회측의 일부 사람들의 말이다. 당초에는 문제의 당사자 중의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으로 송사까지 할 의향을 비친 예민한 사안이었고, 또 일부 책임(?)자들은 40대의 약관(?)의 나이로 유교적 사회질서를 쉽사리 무시하기 어려워 어찌했던 무마 쪽으로 생각한 것이 사실이었다. 딱히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해 혹은 위로, 나아가 격려의 뜻을 밝힌 분은 극소수였다. 그



흉하게 파헤쳐진 황령산



산위까지 오른 주택군



산꼭대기의 집합주택

러나 돌이켜 보아, 도대체 무엇이 그리 잘못 되었던 말인가? 소위 원로라 칭할 수 있는 분이려면, 싸움보다는 평화를, 분리보다는 통합을, 분석보다는 종합을, 폄하보다는 가르침을, 그래서 덕을 쌓는 데 나서야 하지 않은가? 막상 축사는 커녕 현장의 출석까지 거부하고, 어떤 이는 나아가 조직적인 불참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들리는 그 행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물론 일부 책임(?)자들도 분명 우리 인습에 어색하고 또 아마 거스르는 행위를 한 것도 상당 부분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주례 비평, 덕담 나누기로 만연한 이 사회는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서로 봐주기, 다 잘살기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군가 화살을 맞아도 그 일은 치러야 한다. 40대를 청년(?)으로 언급하며 마치 애송이로 취급하여 3~40대의 사회참여에 불쾌함을 드러내는 우리 원로님들, 차라리 물러나 쉬시는 편이 오히려 도와주시는 길이오니 그리하시면 안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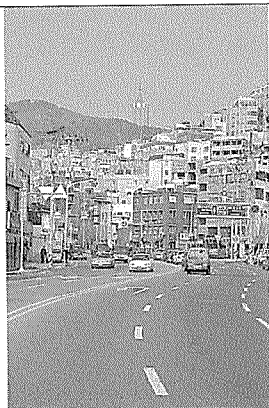
상황으로부터 출발하자

지금 온 나라는 구제금융 문제로 몸살을 심하게 앓고 있다. 결국 세계화는 이제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필수로 다가왔다. 적어도 앞으로 수십 년간은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로 편성될 형국이다. 합리화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없는 삶의 기제다. 열린 시장에서 닫힌 세계관은 폐물일 뿐이다. 그러나 무엇으로 세계화를 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것을 보존하고 생산하고, 또 재생산할 능력을 갖추어 왔는가? 우리 것 없는 세계화는 얼마나 섬뜩한 구호인가? 우리의 찬란한 삶을 또 다시 식민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진정 밥그릇을 위해 교권, 아니 인권마저 버리는 적지 않은 우리 내 교수님들처럼 오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혹은 자본가의 기쁨기를 더 얻기 위해 주체성과 정체성을 외면할 것인가? 우리 주변을 돌아 보라. 먹고 입고 자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주체적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담고 우리의 의식을 치르는 우리의 공간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소원한지.

수십 년간 이어 온 경제중심의 우리 정치가 IMF 체제에 얼마나 당연, 당당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인권 사각시대로 본격적인 진입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그 동안 물질로 인해 굴절되고 황폐해 버린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이제는 명료하게 보아야 한다. 나눔과 절제와 검박과 단순함과 더불어 사는 삶과 생태환경과 공동체의식과 희생과 대의명분과 끈끈함과 청빈함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주목해야 한다. 아!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그동안 얼마나 빼뿔어졌는지 분명 확인해야 할 것이다. 참건축은 오직 삶에 뿌리 내린다는 것을, 그리하여 분명 전인적인 삶의 방식에 마땅히 교섭해야 한다는 것을 정녕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삶은 당연히 삶의 터, 곧 지역에 근거하여 따라서 삶의 건축은 불가피하게 지역주의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문득문득 환기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삶의 조건과 상황을 주시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 참건축은 삶의 건축이며 그것은 생명의 터와 흐름을 외면하고 설 수 없다.

지역성을 (무)의식의 지향체로 삼자

삶은 터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그 터는 또한 삶을 구성한다. 터, 곧 지역은 삶에 색을 부여하고 삶은 지역을 창조한다. 그러므로 삶 혹은 생의 건축은 마땅히 지역의 편린들의 끌어모임이며 다시 지역을 조형하는 에너지다. 세계화와 정보화는 일종의 도구로서 무방향성과 가치 중립성을 띤다. 반면 개별성을 품는 개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보편적인 사회성을 담지하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은 독특성을 담보한다. 새로운 혹은 독자적 세계의 열림과 터짐은 한 개인의 지극한 개별성으로부터도 가능하고 공동체 삶을 담은 지역성으로부터도 가능하다. 선택은 자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건축이 분명 세계의 열림이어야 하며, 그것이 오늘날의 삶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점에서 세계화 혹은 보편화는 건축의 필수적 측면이다. 그것과 동시에 개별성 혹은 지역성 또한 필연적 요청이다.



부산도심의 스카이라인



남선동 아파트촌



바다를 가려버린 아파트

지역성은 삶의 터로부터 길어 올 수도 있고 그 터에서 삶을 꾸리는 공동체의 기질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축가가 그것들을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려 창작의 대상으로 삼을 때까지는 흐릿하고 불분명한 객관으로 침잠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다. 그 때까지 지역성은 오로지 막연한 현실로 존재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건축가는 특히 개체로서 세상을 여는 비상한 개체가 아닌 한, 지역성을 (무)의식의 지향체로 삼아야 한다. 정신을 모아 삶을 온통 그곳에 두고 정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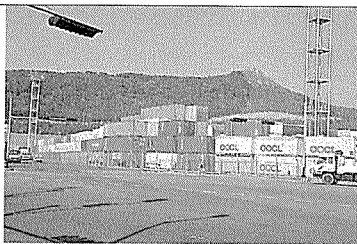
어느 지역이 그렇지 않겠나마는 부산 또한 특유의 지형으로 짜져 있다. 산과 골의 깊이가 다르고 바다의 넓이가 다르다. 하늘의 높이 또한 다르다. 도로 구성이 특이하며 일체가 꿈꾸었던 대동아 번영 기지로서의 땅의 역사, 즉 매립의 흔적이 유별나다. 적산 가옥이 요상하고 길과 집의 구성이 이상하다. 전쟁통이 남긴 피난파의 판자촌들이 희한하며 도시성장 형태가 예사롭지 않다. 그 뿐인가? 마을마다 성격을 표출하는 이름을 띠고 포구마다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리고 범어사가 있고 용두산이 있으며 동백섬이 있고 오륙도가 있으며 동래산성이 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무수히 깔려 있는 땅의 시성(詩性), 역사의 흔적, 삶의 체취들을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을까?

부산의 공동체 성격 또한 확인하다. 어느 이가 폄하조로 표현한 단순 무식, 과격은 어느 측면 적실하기도 하다. 어느 지역민들에 비해 앳싸라(솔직하고 투명함)하고 화끈하며, 절의 타종 소리만큼 깊이깊은 정의 소유자다. 또한 대범하여 쩌쩌하지 않고 뒤끝이 없다. 칼같이 에리하거나 엄정한 수리 계산을 싫어하며 풋풋하고 걸쭉하며 항상 틈에 편안을 느낀다. 정확한 거래는 질색이며 쉽게 손해를 감수하고 앞뒤 재지 않는 나눔의 사람들이며 한 그릇 여럿 손길을 좋아하는 이웃사랑 사람들이다. 시끄러움과 왁자지껄함에 생명력을 확인하며 삶의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며 텅텅함과 소박함을 애써 찾아가는 이들이다. 두 세 말들을 하나로 줄이기를 좋아하고 강한 표현에 깊은 맛을 느끼며 말보다 행동에 무게를 둔다. 좋아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쥐어박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일부로(의도적으로) 함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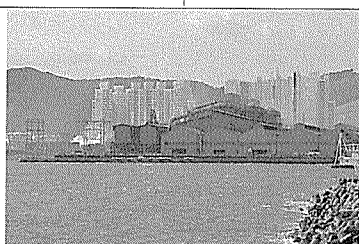
(?) 대하며 거친 말을 쓰며 무한한 사랑을 집어넣는다. 부산사람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안도의 맨 콘크리트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게리(F. Gehry)의 형태에서 실없음을 보고 현란한 장식물에서 구역질을 토한다. 우리 나라 어느 지역민 못지 않게 흠을 사랑하는 부산사람, 장맛을 즐기는 부산사람, 뜨거운 매운탕에서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 툭툭 던지는 몇 마디에 온 삶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 뽀뽀뽀한 다마내기(양파) 서울 사람들(문명인들)을 싫어하며 스스로 된장이라 칭하는 사람, 그들 앞에 서구의 현대건축은 다 부짓쟁이 짓이다. 소박한 아름다움, 나누는 즐거움, 투박한 깊이, 솔직한 만남, 역센 기질, 그 앞에 지나치게 맛있고 세련된(?) 알루미늄 슈트는 너무나 소원한 이방인이다. 아파트에 걸칠만한 색들은 여자 속옷이며 꾸불꾸불한 벽들은 장난이다. 전통창조라 주장하는 문화회관의 무대 박스는 거대한 괴물이며 형태는 우스꽝스러운 광대다. 대청공원의 충혼탑은 유에프이며, 해운대 달맞이의 카페들은 나이트클럽이요 라스베가스다. 그것들은 다 집들이 아니다. 다만 장난이요 미친 짓이요 모자란 이들의 소행이다. 모두 이식된 것들이요 수입된 것들이다. 남은 것은 편린을 주물러 새로움으로 창출할 건축가의 상상력이요 핵심을 뚫는 건축가의 안목이며 시대를 끌고 갈 직관적 가치관이다. 그러나 다만 이것들은 탐문의 대상으로 지역성을 잡을 때 하는 말이며 지역공동체를 의식의 지향체로 삼을 때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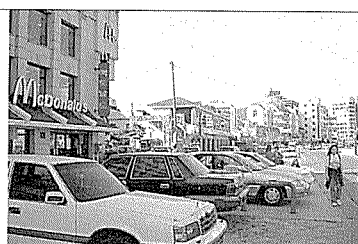
다시 한 번 요청하오니, 부산의 건축가들이여 문제는 그대들 안에 있다. 부디 건축가의 삶을 살 것이겠거니와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되 그대의 의식을 지역성과 치열하게 부딪혀 주기를 바랄 뿐이다.



시내에 아적시킨 컨테이너들



이전후 아파트가 들어설 동국제강



광안리 풍경